

일자민당총재후보들, 외국인 겨냥해 보수표심 공략...'쟁점' 부상

송고2025-09-23 09:37

(연합뉴스 [경수현](#)기자)

참의원 선거서 '일본인 퍼스트' 내건 참정당 약진으로 기류 변화

연정 확대 등 염두에 두고 야당에는 앞다퉂 '추파'

내달 4일 치러질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해 후보들 간에 외국인 정책이 주요 쟁점의 하나로 급부상했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체 출마자 5명 가운데 4명이 전날 개최된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 **외국인 정책**을 거론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왼쪽)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양강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연설 시간의 절반가량을 외국인 정책에 할애했다.

그는 외국인이 나라현 나라시의 명물인 사슴을 발로 차기도 한다면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기뻐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온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반외국인 정서를 자극하기도 했다.

또 다른 양강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외국인 불법취업이나 주민과의 마찰, 치안 악화 등에 의해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문제에 대한 정책 사령탑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최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외국인에 의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출입국 관리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호소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도 "**외국인이나 외국 자본에 의한 토지 매수가 걱정거리**가 됐다"며 "위법 외국인 제로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1년 전인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외국인 정책이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며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의 약진을 기류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참정당의 부상에 따라 보수 성향 지지층의 자민당 이탈 우려가 커졌으면서 외국인 규제 강화는 배외주의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총재 선거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야당을 상대로 어필하려는 움직임이다.

-이하 생략-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3041400073>

日自民党 총재選 후보 4명 '외국인 규제' 정책 강조

기사전송 2025-09-23 07:57

(뉴스핌 오영상 기자)

외국인 토지 취득·출입국 관리 강화 등 잇단 제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리면서 후보자들의 정책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외국인 규제**에 관한 정책이다.

출마한 후보 5명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업 등 4명이 관련 정책을 언급했다.

이 같은 행보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와 맞닿아 있다. 당시 선거에서 외국인 토지 취득이나 출입국 관리 문제가 유권자 사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고, 야당 역시 이슈를 선점하며 보수층을 자극했다.

자민당 후보들이 이번 총재 선거에서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당 차원에서 외국인 규제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열린 당 주최 연설회에서 다카이치는 자신의 지역구인 나라시의 명물 사슴을 외국인이 폭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이를 기뻐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온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바야시는 출입국 관리 강화와 함께, 안보상 중요성이 **큰 토지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취득 제한을 제시**했다. 안보와 경제를 연결한 접근이다.

모테기 역시 **외국 자본의 토지 매입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경제와 안보 프레임을 강화했다.

고이즈미는 제도 설계 측면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연내 행동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8일 발표한 총재 선거 공약이나 같은 날 연설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 왼쪽부터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업. [사진=로이터 뉴스핌]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50923n04497?mid=n0100>

goldendog@newspim.com